

# 문 닫는 제과점이 늘고 있다

## 지난해 555개 ... 올해도 문닫는 점포 크게 늘듯



폐점하는 제과점이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자영제과점의 경우  
555개의 점포가 문을 닫아  
23%의 폐점률을 나타냈다.  
IMF 원년인 올해도 급격한 이윤 감소로  
폐점하는 점포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서울 지역의 경우 23%의 제과점이 문을 닫았다. 올해는 급격한 이윤 감소로 더 많은 점포가 폐점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개최 이후 성장을 보이던 베이커리 업계가 매출 부진을 겪기 시작한 것은 90년초부터이다. 이후 조금씩 줄기 시작한 이윤 등으로 인해 폐점하는 점포도 서서히 증가했다. 물론 폐점하는 점포가 적지 않았던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폐점되는 점포수와 전체 제과점수에서 폐점 점포가 차지하는 비율, 이른바 폐점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본지가 최근의 폐점 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97년 12월말 현재 대한제과협회의 서울 지역 회원수(자영제과점 기준)는 총 2,366개 업소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 개업한 점포는 964개, 폐업한 점포는 555개로 밝혀졌다(표 참조). 그러나 964개의 개업 점포에는 주인만 바뀐 명의 변경 점포 251개가 포함돼 있으므로 새로 생겨난 점포(이하 '순수 증가 점포'라 표기)는 713개라 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의 폐업 점포 555개에도 명의 변경한 점포 251개가 포함돼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완전히 없어진 점포(이하 '완전 폐업 점포'라 표기)는 304개라 할 수 있다(표 참조). 하지만 폐점률을 계산할 때는 명의 변경 점포도 전 주인이 문을 닫고 새 주인이 다시 개업한 점포이므로 '완전 폐업 점포'와 함께 폐점수에 포함시킨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하면 지난해의 폐점 상황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제과협회의 서울 지역 회원수는 2,366개이다. 이는 97년 1월 1일 이후 서울 지역 제과점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결과 97년 말에 2,366개의 점포가 남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작년말 2,366개 점포에서 '순수 증가 점포'

713개를 나는 개업률은 30.1%, '완전 폐업 점포'와 '명의 변경 점포' 합해 555개를 나는 폐점률은 23.4%라고 할 수 있다.

### 서울 지역 10곳 중 2.3개꼴로 문 닫아

서울 지역의 제과점 폐점률 23.4%는 10곳 건너 2.3개꼴의 점포가 폐점된 것으로 적지 않은 숫자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가 좋지 않아 폐점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이는 지난해에 폐점 점포가 555개로 적지 않았으나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 생긴 '순수 증가 점포'가 713개로 폐점 점포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즉 전체적인 점포수는 증가했으므로 이런 요인이 폐점률을 낮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문을 닫은 555개 점포 가운데 '완전 폐업 점포'는 304개로 '명의 변경 점포' 251개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북구가 폐점률 46%, 서대문구, 은평구의 서부지역이 35%,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의 남부 지역이 35%, 양천구가 34%로 서울 지역 평균 폐점률 2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마포구 6%, 성북구 9%, 동작구 10%, 노원구 12%로 평균 폐점률보다 낮았다(표 참조).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사실은 지난해 서울 지역의 '순수 증가 점포'는 713개이며 명의 변경 점포가 251개로 총 964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총 점포수 2,366개의 41%에 해당된다. 즉 전체 제과점 가운데 59% 정도의 점포만 아무런 변동이 없었을 뿐 나머지 41% 점포가 새로 생긴 점포이거나 일단 폐업한 점포를 인수받은 점포로 구성돼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은 업계

가 개업과 폐점의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개업과 폐업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본지가 조사한 전국의 제과점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제과점에서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의 제과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달한다. 이들 도시를 포함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제과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나 된다. 결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업소간 치열한 경쟁을 벌여지고 있고 그 결과 개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어떤 점포가 폐업되고 있는지는 통계를 낼 수 없다. 그러나 영세 업소가 많이 폐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업주가 제과점 경영에 경험이 없거나, 1명의 기술인을 고용하는 소자본 업소는 폐점 기간이 문제일 뿐 2년 내외 사이에 거의 폐업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이들 점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윤이 급속히 감소됨에 따라 폐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자영제과점 폐점률은 23%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최근의 경영 위기 상황처럼 심각하지 않은 상태인 지난해에 기록한 폐점률에 불과하다. 실제로 환율 상승의 여파로 재료값이 폭등한 것도 지난해 12월 중순에서 올해 1월 사이였다. 따라서 지난해는 경기 침체에 의한 단순한 매출 부진과 이로 인한 이윤 감소로만 23%의 폐점률을 기록한 셈이다.

### 이윤 감소 누적된 5월쯤부터 폐점 크게 늘듯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상황의 심각성이 다르다. 지난해 11월 중순경보다 2월 현재 기초 재료 가격이 50~60% 올라 제과점들은 제품 가격을 25% 정도 인상했다. 그 결과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자의 구매가 더 위축돼 매출도 더 떨어진 양상을 띠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년에 비해 매출이 50% 하락했지만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므로 매출 부진 폭이 약간 줄어 예년에 비해 실제로 하락한 매출은 35%선이라고 보고 있다.

원가 상승, 극심한 매출 부진 등 본격적인 IMF 한파의 영향에 따라 제과점이 이윤 감소로 고전하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다. 본지가 지금까지의 폐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월까지의 서울 지역의 경우 완전 폐업 및 명의 변경 점포를 포함해 39개가 폐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위기 상황에 비하면 폐점수는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계속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올해 2월까지의 미미한 폐점수는 폐점이 적은 겨울철이라는 요인때문일 수 있다. 또 이보다 더 큰 요인은 본격적인 IMF의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등 경영 압박을 받은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아직까지는 폐점이 적었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그러므로 급격한 이윤 감소가 4~6개월간 누적된 시기부터는 경영 압박 요인을 견디지 못한 점포들의 폐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폐점하는 점포가 많고 폐점률도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어떤 장사를 해도 안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새롭게 창업하는 점포나 폐점된 점포를 인수받아 개업하는 점포는 예년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폐점된 점포가 명의 변경을 통해 다시 개업하는 수가 줄어든 만큼의 폐점수는 늘어나고 여기에 완전 폐업하는 점포까지 포함되면 폐점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폐업률 조사 결과는 서울을 모델로 해 수치면에서 타 지역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폐점 점포도 많은 것은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국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IMF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제과점들은 살아남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K] <글/ 박종산>

<표> 97년도 서울지역 자영제과점 폐점현황

지회명	제과점수	폐점수		폐점률	지회명	제과점수	폐점수		폐점률	지회명	제과점수	폐점수		폐점률
		완전폐업	명의 변경 폐업				완전폐업	명의 변경 폐업				완전폐업	명의 변경 폐업	
중부	126개	31개		25%	노원	120개	14개		12%	관악	157개	27개		17%
		27개	4개				4개	10개				10개	17개	
서부	172개	61개		35%	남부	270개	95개		35%	동작	100개	10개		10%
		48개	13개				64개	31개				2개	8개	
마포	75개	5개		6%	동부	185개	53개		29%	강동	288개	49개		17%
		4개	1개				20개	30개				20개	29개	
성북	116개	10개		9%	강남	183개	38개		21%	양천	112개	38개		34%
		2개	8개				27개	11개				12개	16개	
도봉	99개	28개		28%	성동	162개	44개		27%	총계	2,366개	555개		23%
		15개	13개				32개	12개				304개	251개	
강북	71개	33개		46%	강서	130개	19개		15%	* 대한제과협회 서울지역의 지회별 회원 업소를 대상으로 함.				
		11개	12개				7개	12개						